

2020년 1월 5일

가족 여러분께,

에릭 아담스 시장과 함께 새로운 교육감으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정말 필요했던 겨울방학 후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학생, 가족,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 개방을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보건 및 안전 조치를 안내하는 편지를 최근 보내드렸습니다. 가정에서 검사를 받고 백신을 접종하고 교내 검사에 동의하실 것을 장려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은 schools.nyc.gov/messagesforfamilies 에서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 이자 평생 교육자로 일해오면서 모든 어린이는 재능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튼튼한 학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구직 능력을 갖추고 졸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한 방법 및 지원도 받아야 합니다.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자랑스러운 뉴요커로서 저는 우수한 교육자와 학교가 아이의 인생에 가져올 수 있는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브루클린 P.S. 161의 교사 Mrs. Mildred Scott 를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 흑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또한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을 알려주셨고 부모님도 그 가치관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퀸즈에서도 계속되어 Hillcrest High School 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 1년간 학교 안전 요원으로 일하면서 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보낸 Eastern Parkway 에 위치한 P.S. 167 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Bronx School for Law, Government and Justice 의 초대 교장이 되고 훗날 Eagle Academy for Young Men 의 교장이 되어 공립학교 환경에서도 유색 청소년에게 양질의 대학 예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냈습니다.

30년 이상 이 일을 해오면서 교육에 대해 배운 몇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해답은 교사, 교장, 아이들, 가족들의 마음과 머리 속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커뮤니티 전체의 참여 없이 모든 아이를 위한 혁신적인 양질의 학교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육감으로 일한 첫 주를 보내며 미국 최대의 학교 시스템을 미국 최고의 학교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환영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모든 지역의 어린이들, 특히 역사적으로 낙오되었던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 임시 거주지에 살고있는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기술을 배우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이 되기 위한 지원, 학습 경험, 리소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항상 정직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주십시오. 포장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큰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야만 우리의 이 거대한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3년째 접어들어 새로운 교육 및 학습법에 적응해야만 하는 지금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가족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녀 교육의 파트너로서 모든 가족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에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 달간 학교 시스템과 소통하는 개선된 새로운 방법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학교, 커뮤니티를 옹호하실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학교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한 저의 다짐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였으며 가능한 방해물을 최소화 하며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 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뉴욕시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따뜻한 축하와 모든 학생들을 위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높이 날아 봅시다.



뉴욕시 교육청
데이비드 C. 뱅크스
교육감 배상